

무더위 본격 시작, '냉방기기 화재 빈발' 경각심 필요

폭염에 일일 가동 시간 늘어
기기 원인 화재 8월에 최다
광주서 5년간 여름철 47건
“사전 점검·관리 철저히 해야”

무더위가 절정인 8월은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은 이를 위해 꾸준한 점검과 관리와 함께 노후된 냉방기기를 늦기 전에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31일 소방당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8월(에어컨 411건·선풍기 172건), 7월(에어컨 376건·선풍기 123건), 6월(에어컨 122건·선풍기 65건), 9월(에어컨 109건·선풍기 70건) 순으로 하절기(6~9월) 중 8월에 가장 많은 냉방 기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냉방기기 화재는 여름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 지역 여름철(7~8월) 발생 전체 화재 사고 667건 중 47건(7.04%)이 냉방기기 화재로 인한 사고였다.

전남에서는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총 1422건의 화재 피해가 발생했고
△부주의 562건(39.5%) △전기 요인

455건(32%), △기계적 요인 176건 (12.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동기간 계절용 기기 화재 발생 건수는 △에어컨 19건(40.4%) △선풍기 10건(21.3%) △가정용보일러 7건(12.8%) 순이었다.

냉방기가 화재 발생 원인으로서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데, 이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부 부품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총 1265건의 에어컨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이 986건(77.9%)으로 가장 높았고 기계적 요인(103건·8.1%)과 부주의(86건·6.8%)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공간이 비교적 작은 주거시설에선 좁은 공간에 배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 축적 등으로 인한 과열로 작은 불티에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따르고 장마철이나 장마가 끝난 직후인 8월 초에는 습도가 높아 물기가 전선을 지나며 누설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공사현장·고층건물 화재 진압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냉방기기 화재 진압 훈련을 별도로 진행하진 않는다”며 “다른 화

재 사고에 비해 시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 평소 이용하는 에어컨·선풍기 등의 전선을 수시로 점검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의 위험성을 높이는 에어컨·선풍기 등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조해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침착하면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에어컨·선풍기를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본 작동 원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과한 열을 받거나 전압값이 다르게 설정돼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냉방기기를 올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멀티콘센트에 허용된 전압값을 초과해선 안 된다. 노후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에어컨 내 필터·실외기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기가 올라오거나 화재가 이미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한 뒤 작동 중인 기기를 전류차단을 통해 끄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 소화기 등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화 약제를 찾아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계림1동 경양마을 어린이 문화공연

여름방학 맞이 아동복지프로그램 경양마을 어린이 문화공연이 31일 광주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려 계림1동 협의체 위원과 아동 등이 마술

김양배 기자

김양배 기자

법원, 한국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9월4일까지 회생채권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31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제1-2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 지속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기에 개시 원인이 있다”고 회생 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국건설의 채권자는 광주지방국세청, 전남도, 광주 5개구, 서울 동작구,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다수의 은행, 건설업체, 하청업체 등 2409명이며, 회생 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오는 22일부터 9월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9월5일부터 10월5일까지 한달간 회생 채권, 담보권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사교육 근절’ 광주 학원가 특별점검 나선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단속

광주 남구 봉선동의 과열된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는 보도(본보 2024년 7월1~9일자 '호남 사교육 1번지' 봉선동 집중해부) 이후 교육 당국이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은 8월1일부터 23일까지 편·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

습비 초과 징수 △거짓·과대 광고 △강사 채용통보 적정성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불법 학원, 교습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 의대반 확산 등 사교육 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학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정성숙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편·불법 운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겠다"며 "건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 지역만 집중 단속할 수는 없지만, 봉선동의 경우 절대적인 학원 수가 많은 등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지난해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211개의 학원이 학원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강주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